

“차별 등 사회적 요인, 노인 자살로 내몰아”
조성희 순천향대 교수, ‘2016 자살예방세미나’ 서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명예를 쓴 대한민국(2015 통계청).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최유)는 5월 26일 ‘2016 자살예방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강연에 나선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과 교수(사진)는 노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노인의 배제 및 차별 경험’에 주목했다.

조 교수는 2015년 10월 1~23일 노인 복지관 이용자 총 500명(서울 250·도농복합 150·농촌 100)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결측치를 제외, 총 473부(서울 239·도농복합 136·농촌 98)를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조 교수는 “사회로부터 다양한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은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 또한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의료서비스로부터의 배제, 소비에서의 배제 등 요인에서 노인 우울감이 찾아온다”며 “특히 의료서비스로부터의 배제는 우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노인자살은 매우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즉 오랜 시간동안 자살을 생각한 단 의미”라며 “따라서 자살 위험군에 속한 노인을 조기 발견해 개입함으로써 치명적 결과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적절한 사회적 역할 부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조항 엄격 적용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종합적 노인자살예방시스템 확립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서비스 활성화 등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조 교수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노인우울’에 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센터·생명의 전화 등 분산된 우울상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구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노인 보건·복지 시스템’의 강화 및 완비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천태대사 주석처에 세계평화비 ‘우뚝’

천태종, 중국천사·정거사에 각각 제막

지난 1995년 중국 절강성 국청사에 한 중조사기념당을 건립한 뒤 꾸준히 중국 불교계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천태종이 천태지의대사(538-597) 주석처에 세계평화비를 제막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5월 18일과 20일 각각 중국 호북성 당양시 옥천사와 하남성 광산현 정거사에서 각각 ‘천태불법흥포세계평화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행사는 2013년부터 천태종과 중국 불교계가 오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평화비는 천태종 교의가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평화비는 구형과 비석, 용두거북, 받침으로 제작됐으며 높이는 5m를 넘는다.

비문은 천태종에서 직접 준비했다. 비문에는 ‘동토가문(東土迦文, 동쪽의 석가모니)’이라 불렀던 천태대사의 원력을 찬탄하면서 “천태의 깃발아래 모인 법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모두 그 옛적 영산회상의 대중들이라네. 깊은 인연을 기뻐하며 한국 천태종 중창 반세기를 맞으며, 일승묘법의 진리 온 누리에 퍼져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이 실현돼 사바적광정토가 구현될 것을 발원하며 이 비를 세운다”고 새겼다.

각 행사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범어를 통해 1500년 천태불교의 역사를 찬탄하고, 한량없는 천태대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기념사에서 “천태대사의 대발심 원력수행과 광활했던 가르침의 맥박이 흐르는 곳에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비를 세우게 됐다”며 “한국 천태종은 천태대사의 유

의를 다지고, 중생제도의 길을 넓혀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태종은 5월 18일과 20일 각각 중국 옥천사와 정거사에서 ‘천태불법흥포세계평화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옥천사 제막식.

를 세움으로써 동아시아 천태불교의 유

를 다지고, 중생제도의 길을 넓혀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조민 당양종교국장, 정거사 방장 청원 스님 등 중국불교계 대표자들은 한중불교의 불법우의를 바탕으로 활발히 교류할 것을 서원했다. 이외에도 무한대학철학학원 중국불교문화예술연구센터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측에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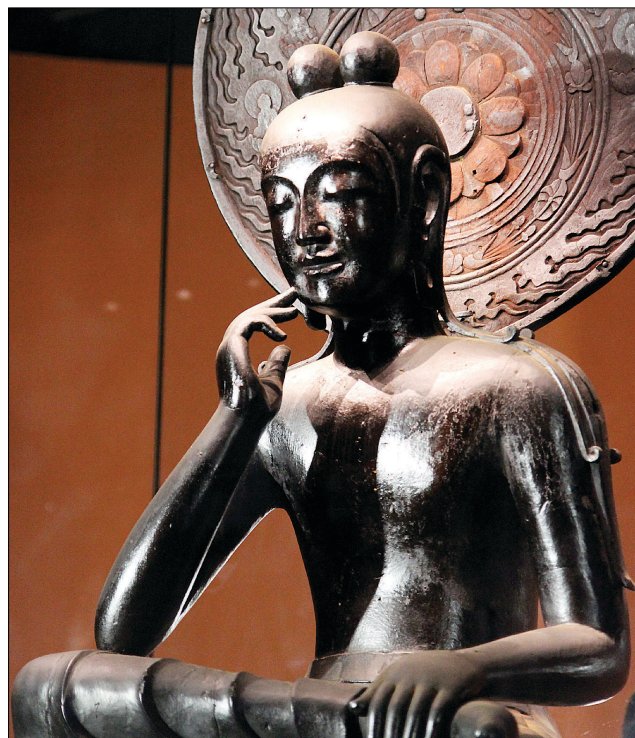
천태종은 앞으로 천태성지의 의미를 재조명해 다양한 불사를 추진하는 한편, 인적교류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중국 옥천사는 천태대사가 천태종 핵심 가르침인 천태삼대부 가운데(법화현의)와(마하지관)를 설한 곳이며, 정거사는 스승 혜사선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이룬 천태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천태대사는 천태종을 창종하며 종조로 우수보살, 제1조 북제 혜문, 제2조로 혜사선사를 삼고 자신은 제3조가 됐다.

윤호섭 기자



한 자리에서 만난 한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사진 왼쪽)과 일본의 국보 주구사(中宮寺) 반가사유상(사진 오른쪽)의 모습. 한국과 일본의 반가사유상 한자리에서 만난 역사적인 기념전시지만, 일본 불교계만 불교 의식을 허용해 반축을 하고 있다.



한 자리에서 만난 한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사진 왼쪽)과 일본의 국보 주구사(中宮寺) 반가사유상(사진 오른쪽)의 모습. 한국과 일본의 반가사유상 한자리에서 만난 역사적인 기념전시지만, 일본 불교계만 불교 의식을 허용해 반축을 하고 있다.

한·일 반가사유상 최초로 한자리에

국립중앙박물관, 6월 12일까지 기획전시

일본 불교계만 의식 허용 ‘논란’
관장 사과... 조계종 예외 주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반가사유상이 한자리에 전시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기획된 특별전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을 오는 6월 12일까지 3주간 기획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의 국보 주구사(中宮寺) 반가사유상이 최초로 한 자리에서 만난다.

한국의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은 6세기에 제작된 삼국시대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작품이며, 일본의 국보 주구사 반가사유상은 7세기 아스카(飛鳥)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역사적인 기획전시회는 개막식에서 일본 불교계의 불교 의식과 한다·현화 등을 허용해 한국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결국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은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직접 조계종 문화부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관장은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박물관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관련 강연 기사 8면>

재가공부 위한 근현대불교 강좌 개설

불교인재원, 총 15회 걸쳐

재가공부 열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600년 불교 역사를 돌아보는 연속강좌를 열고 있는 불교인재원이 4차 강좌를 마련했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임상호)은 5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국 근현대불교’를 주제로 총 15회에 걸쳐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 선운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한국불교 선택의 핵심인 경허와 만공선사를 시작으로 용성·만해·이종욱·한암·탄허 등 한국불교계를 그은 큰스님들을 다룬다. 본 강좌는 14회 성철·자운 스님에 대한 강의로 마무리되며, 15회는 특강 ‘한국불교와 통일(통일은 대박이다) 저자(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강연’으로 진행된다. 강사진으로는 고영섭 동국대 교

수, 김광식 동국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신규탁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참가비는 10만원.

임상호 이사장은 “연속강좌를 3차로 마치려 했지만 근현대불교에 대한 강좌 요청이 있어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가공부 열기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인재원은 이외에도 생활참선 입문과정 제16기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길’을 개설했다. 화두참선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강좌는 5월 27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증명법사로 총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 강사로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이 참여한다. 참가비 12만원, 선착순 30명이다. 만 30세 이하 청년은 무료. 1661-1108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강의 일정

날짜	주제	강사
5.30	근대 한국 선택의 핵심 경허와 만공	고영섭 동국대 교수
6.13	항일민족운동과 불교현대화의 주역 백용성	김광식 동국대 교수
6.20	항일민족운동과 대사인 만해 스님과 선학원	-
6.27	한국의 부부나 존자 통산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7.4	일제강점기 조계종의 신평, 조계사의 창건주 지암 이종욱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
7.11	오대산을 지켜온 한암과 탄허	자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7.18	통도사 영축산 호랑이 성해남거 스님과 그의 제자들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7.25	한국불교의 대강변 한영정호 스님과 청담 스님	고영섭 동국대 교수
8.1	고불총림의 법주 만암과 서용 종정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8.8	불교 최초 근대학교의 설립자, 봉선사의 중창주 월초, 운허, 태허	신규탁 연세대 교수
8.22	송광사를 중창한 효봉과 구산	보경 스님(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8.29	법주사와 금오대전 스님	김정진 진각대 교수
9.5	법보선원의 창건주 전강 스님과 선동진전	-
9.12	봉암사 결사와 해인총림의 주역 성철, 자운 스님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
9.19	한국불교와 통일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 강연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제1차 평온 공개강좌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이 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하다

암(癌)은 깨달음과 무슨 관계인가?

- 제1차 공개강좌 일시: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 공개강좌장소: 화엄경강원
- 참석대상 및 참가비: 누구나, 선착순 30명 제한, 참가비 무료 (예약 접수하신 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신청 및 문의: 1899-9532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강원
방장 진귀

